

인쇄혁명에서 '知價革命'으로

金容雲

한양대 교수·대학원장

요즘의 출판인, 독서인들은 빠르게 진행되어 가는 인류사적 변혁을 당혹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니, 단절의 시대니 하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늘날 정보의 범람은 책의 선택으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 온갖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이에 우리는 좀더 넓은 차원으로 눈을 돌려 미래사회의 전개를 어렵으나마 짐작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인류사의 차원에서 정보혁명은 15세기에 이미 있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두번째 정보혁명이라 할 수 있다. 첫번째 정보혁명은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의 발명이었고 두번째의 정보혁명이 C&C(Computer and Communication)인데, 사회에 준 충격은 인쇄술에 비해 'C&C'가 수억, 수조배나 크다. 하나의 정보가 주는 충격이 순식간에 전세계를 돌아 곧바로 피드백되어 보다 높은 차원의 정보가 재생산되어 나간다.

인쇄술의 발달은 성서 보급으로 神에 관한 정보를 독점한 사제계급을 무력화시켰고, 종교혁명을 야기하여 마침내 봉건제도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이와 아울러 영세했던 경제규모도 확장하는데, 서적의 범람은 인간에게 지적욕구를 자극하여 과학혁명을 일으키며 근대문명을 발달시켰다. 즉, 인쇄술의 발달은 직·간접적으로 종교혁명, 르네상스, 과학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독서와 출판'이 근대 5백년간의 변혁을 몰고온 셈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변혁의 실상은 그보다 훨씬 빠르다.

근대문명의 대표적인 세가지 발명으로 흔히 인쇄술, 화약, 나침반을 드는데 C&C의 발달은 그 세가지 발명을 모두 내포하고도 수만배나 더 큰 충격을 준다. C&C의 발달은 인공위성을 올리고 각국의 군사적 비밀을 폭로한다. 또한 유도무기의 정밀도는 거의 100%가 되었다. 정부가 독점해왔던 정보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된다. 독재자, 폐쇄적인 국가형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6·29선언, 60년대의 전세계적인 학생소요, 일본 정치인의 성스캔들, 천안문사건,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일로는 동구의 개혁정책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등도 그러한 변혁의 선상에 있다. 르네상스 이후 인간이 겪은 5백년간의 변천과정을 불과 몇 십년 내에 체험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탈이데올로기, 군사력의 무의미화, 하이테크, 첨단과학, 우주개발, 국제화 등이 지난날의 대항해, 종교혁명, 화약의 발명으로 인한 기사계급의 몰락과 봉건제도의 붕괴를 더 크게 확장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계속 엄청난 충격을 가하면서 그 결과가 상승작용을 거듭해나갈 것이다. 모든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인간의식이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정보화시대의 지표는 정보(지식, 서비스) 노동자의 수가 근육노동자의 수보다 많아지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선진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7대3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90년대 말에는 9대1쯤 되어갈 것이 예상된다. 즉 노동자, 농민을 대증으로 보는 시대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바야흐로 지식의 상품가격을 정하는 '知價革命'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독서인구는 더욱더 증대해 나갈 것이고 이들이 요청하는 책도 다양해진다. 출판시장도 국제화되어 갈 것이다. 이제 출판계, 독서계는 끊임없는 판단과 결정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선택은 知價를 높이는 수단이다. 정보화시대의 서적사회(출판과 독서인)에서는 종래의 서적이거나 독서에 대한 사고를 불가불 바꾸어야 한다. 15세기에 시작한 인쇄혁명은 이제 知價革命을 몰고온 것이다.

표지인물	2	의학용어의 '한국화'로 가는 디딤돌 「의학대사전」 펴낸 李宇柱 박사
뉴스	3	해외동포에 우리책 기증
특별기고	4	미국의 책과 책방, 출판사—趙昇勳 한 韓人서적상이 펼쳐는 '체험적 미국출판론'
저자인터뷰	7	인간중심의 공간 위한 '환경창조' 「환경조각」 펴낸 崔秉尙 교수
서평	8	마이네케 「국가권력의 이념사」—배병삼 김승현 「情報社會정치경제학」—문중대 9 러브록 「가이아」—장희익 임철우 「붉은 산, 흰 새」—우찬제
신간다이제스트	10	프랑스혁명과 禁書의 사회사 주명철 지음 「바스티유의 금서」
출판화제	12	'노래운동' 책으로도 펼친다 13 근대회화사의 전모 담은 '가정미술관'
교양논단	14	思考의 단편화 깨는 '相關關係學' 베이츠의 '마음의 생태학'이란 무엇인가
저작구상	12	'게으른 산책자의 글읽기'—김정란
작품구상	15	'하늘에 걸린 얼굴'—오인문
이 책을 말한다	16	마르크스를 소설로 읽는 즐거움—김석희 셀레브리아코바 「소설 마르크스—프로메테우스」
이 책 그 사람	18	장편 「투시」의 작가 禹熙泰씨 「비어있는 자리」 낸 박도씨 19 「뉘히너문학연구」 낸 김황진교수 「글힘 돌음」 낸 高廷旭씨 20 「달이 지는 곳으로」 낸 이진호씨 보건과사회연구회 김용익회장 21 「벼루」 펴낸 언론인 權度洪씨 「인체소묘」 펴낸 화가 최쌍중씨
세계의 출판	22	두 언론인이 그린 노리에가의 초상·외
컬러서가	24	詩人 高銀씨의 書架
독자서평	26	남승호/신유미/한정석/신혜옥 28 새로나온 詩集 29 어린이책 들춰보기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이색출판/화제의 책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색인 48 프리즘/독서퀴즈/정기구독안내